

# 보도자료



보도 희망일	즉시
문의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snupr2@snu.ac.kr

배포일: 2022. 8. 29.(월)

## 서울대,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2022년 8월 29일(월) 오전 10시30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서울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959명, 석사 1,041명, 박사 700명 총 2,700명에게 각각 영예로운 학위를 받았다.
- 지난 제73회 후기 학위수여식(2019년 8월) 이후 3년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위수여식이 진행된 지난 졸업생(2020년 8월~2022년 2월, 2020년 2월 미개최)도 초청되었다. 이날 행사에 500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참석 신청을 하였다.
- 올해 한국계 수학자 중 처음으로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프린스턴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학사 및 수리과학부 석사)가 축사 연사로 초청되어 후배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허준이 교수가 ‘제32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어 학위수여식 행사 중 시상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대는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을 지난 1991년부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 서울대는 민주화 운동 당시 사망 등의 사유로 제적되어 졸업하지 못한 7명의 민주화 열사(김태훈 경제학과 78학번, 김학묵 사회학과 78학번, 박혜정 국문학과 83학번, 송중호 서어서문학과 87학번, 이동수 원예학과 83학번, 이진래 제약학과 79학번, 황정하 토목공학과 80학번)를 명예졸업자로 선정하고, 이날 유가족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전달하였다.

□ 오세정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코로나19 시대는 인류에게 닥친 어려움을 세계적으로 합심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 시간이었다” 며 “코로나 19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시점에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졸업생들은 새로운 세계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며 담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주역이 될 것을 당부했다. <학위수여식사: 별첨>

□ 주요 식순

-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 졸업생 대표 인사(2명),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여(허준이 교수), 축사(허준이 교수)
- 학위수여(단과대학별 대표, 명예졸업증서), 상장 수여

## 【첨부1】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사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모님과 가족들께도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중에 우리 졸업생들의 성취를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교수님들과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졸업생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제 졸업생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올해 졸업생들 말고도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손님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올해 수상자인 허준이 교수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허 교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준이 교수님은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한 동문이기도 하셔서 잠시 후 허준이 교수님께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후 허준이 교수님의 졸업식 축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동문 선배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손님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미등록, 제명 등으로 졸업하지 못했던 선배님들 다섯 분입니다. 오늘 이분들께 서울대학교 명예졸업증서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분들과 4.19 혁명 등 민주화 운동 희생자분들께 명예졸업장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찾아내어 서울대학교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손님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졸업식으로 만족해야 했던 졸업생 여러분들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는 네 번의 졸업식을 비대면으로만 개최해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첫 번째로 대면 졸업식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지난 3년간 비대면 졸업식을 치른 졸업생들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무려 5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이 자리에 오시겠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들 졸업생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시대를 고통의 시간으로만 기억합니다. 대학의 수업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고, 친구들과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으며, 심지어 평생 한 번인 입학식과 졸업식조차 비대면으로 해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과 손 한 번 맞잡아보지 못한 채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슴 아픈 시간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코로나19의 시대는 인류에게 닥친 어려움을 전 세계적으로 합심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과학의 성취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알아내고, 가장 효율적인 백신 개발 방법을 찾아내고, 임상시험도 빠르게 진행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거쳐 실제 접종에 이르기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주요 백신의 개발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팬데믹의 와중에 불가피하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을 관리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는 전교의 연구역량을 총동원하여 인류를 위한 공헌에 나섰습니다. 의학과 생명과학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물론이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거의 모든 연구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와 공유하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감염병에 맞선 인류의 싸움에서 서울대학교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졸업생 여러분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었던 자랑스러운 주역들입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시점에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생존자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설계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은 실제로는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왔던 문제들이고, 인류는 그것을 알면서도 짐짓 외면해 왔습니다. 코로나19는 그 문제들을 더욱 첨예하게 드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류가 어떻게 지구와 공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방치해왔습니다. 여러 나라의 경험에서 보듯이, 기술은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감시와 탄압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순식간에 생명과 안전의 불평등으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이 4차 접종을 맞는 동안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들은 1차 접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선진국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동안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은 열악한 빈민촌에서 밀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세상에 알려지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경험은 이런 문제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인류는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주역이 되어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최근 들어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국제무역개발기구에서 개도국이었던가 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승격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세계적인 대학들을 부러워하며 열심히 추격하기만 하던 시절이 있

었지만,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QS 세계대학 랭킹 29위로 올라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그룹에 본격적으로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도, 서울대학교에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계사를 만들어나가는 주역이라는 자각과 그에 걸맞은 행동, 그리고 책임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선도 대학다운 생각과 행동, 그리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모교를 믿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준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조국과 모교를 지금보다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생존자가 아닌 승리의 주역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인류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세계사의 주역으로서 행동하십시오. 모교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도를 축하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총장 오 세 정

## 【첨부2】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사랑하는 후배 졸업생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대 총동창회의 회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예로운 학사와 석사·박사 학위 취득을 44만 서울대 동문을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대학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진력하시는 오세정 총장님, 애정 어린 지도로 학생들을 끌어주신 교직원 여러분, 정성으로 뒷바라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졸업은 기쁘고 감동적인 일이지만 오늘은 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2년간 대면 졸업식을 치르지 못했던 졸업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배로서 ‘코로나 세대’ 후배들이 대학 시절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서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역경을 잘 이겨내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한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모교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전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대학 졸업이라는 하나의 마무리를 하고, 다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물어보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면을 조금 덜어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이기적인 면을 조금만 줄인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인간관계의 연속이고 좁게는 가족, 친구로부터 넓게는 직장,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교에 입학했을 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당시 부모, 친구, 주변의 모든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지요. 그분들은 왜 축하를 해주셨을까요? 아마도 사회에 나가 훌륭한 인재가 되어달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축하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때 그분들로부터 다시 축하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서울대인은 혼자 똑똑하긴 한데 남과 어울려 함께하는 마음가짐이 약하다고들 합니다. 이 말에 전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을 낮추면서 남들보다 2%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늘 서울대 후배들도 일찍부터 나눔의 기쁨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글로벌 사회 공헌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잘 정착해서 후배들이 세계 곳곳에서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것을 보면 흐뭇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서울대 졸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상, 우리에게겐 사회에 보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기부를 하는 것만 사회 공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든, 연구실에서든, 내가 몸담은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서울대에서 받은 최고의 교육에,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까지 갖추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성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모교와 선배들이 물심양면 여러분을 지원한 의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총동창회 또한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동문 기업인들로 이뤄진 관악경제인회,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수십 년간 계속돼 온 장학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문들을 위해 좋은 강연 프로그램과 취미 소모임을 열고,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문 기업 상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 ‘Mall SNUA’도 곧 생깁니다.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44만 동문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서울대 동문으로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김종섭

## 【첨부2】 축사(허준이 교수)

안녕하세요, 07년도 여름에 졸업한 수학자 허준이입니다.

우리가 팔십 년을 건강하게 산다고 가정하면 약 삼만 일을 사는 셈인데, 우리 직관이 다루기엔 제법 큰 수입입니다. 저는 대략 그 절반을 지나 보냈고, 여러분 대부분은 약 삼분의 일을 지나 보냈습니다. 혹시 그중 며칠을 기억하고 있는지 세어 본 적 있으신가요? 쉽 없이 들이쉬고 내쉬는 우리가 오랫동안 잡고 있을 날들은 삼만의 아주 일부입니다. 먼 옛날의 나와, 지금 여기의 나와, 먼 훗날의 나라는 세 명의 완벽히 낯선 사람들을 이런 날들이 영성하게 이어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졸업식이 그런 날 중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루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학위 수여식에 참석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 중 하나가 졸업 축사가 아닌가 합니다. 우연과 의지와 기질이 기막히게 정렬돼서 크게 성공한 사람의 교묘한 자기 자랑을 듣고 말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겁이 나서, 아니면 충실하게 지내지 못한 대학생활이 부끄러워 십오 년 전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축하받을 만한 일을 축하받기 위해 이를 무릅쓰고 이곳에 왔습니다.

졸업식 축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십몇 년 후의 내가 되어 자신에게 해줄 축사를 미리 떠올려 보는 것도,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축사를 지금 떠올려 보는 것도 가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게 떠오르는 말은 없습니다. 지난 몇천 일, 혹은 다가올 몇천 일간의 온갖 기대와 실망, 친절과 부조리, 행운과 불행, 그새 무섭도록 반복적인 일상의 세부 사항은 말하기에도, 듣기에도 힘들거니와 격려와 축하라는 본래의 목적에도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화한 마음은 부적절하거나 초라합니다.

제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똑똑하면서 건강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주위 수많은 친구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잘 쉬고 돌아오라던 어느 은사님의 말씀이, 듣성듣성해진 성적표 위에서 아직도 저를 쳐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정도의 차이와 방향의 다름이 있을지언정 지난 몇 년간 본질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도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끝은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매일의 반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 수도, 생각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거부하라.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진짜 꿈을 쫓아라. 모두 좋은 조언이고 사회의 입장에서 특히나 유용한 말입니다만, 개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은 이미 고민해 봤습니다. 제로섬 상대평가의 몇 가지 통명스러운 기준을 따르다면, 일부만이 예외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 번덕스러운 우연이,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랍니다. 나는 커서 어떻게 살까, 오래된 질문을 오늘부터의 매일이 대답해줍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일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말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오래전의 제가 졸업식에 왔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고민했습니다만 생각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그가 경험하게 될 날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가슴 먹먹하게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선물할 어떤 축사를 떠올리셨을지 궁금합니다.

수학은 무모순이 용납하는 어떤 정의도 허락합니다. 수학자들 주요 업무가 그중 무엇을 쓸지 선택하는 것인데,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한 여러 가지 약속 중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구조를 끌어내는지가 그 가치의 잣대가 됩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하니 들뜬 마음에 모든 시도가 소중한 보입니다. 타인을 내가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먼 미래의 자신으로, 자신을 잠시지만 지금 여기서 온전히 함께 하고 있는 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졸업생 여러분, 오래 준비한 완성을 축하하고,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